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2년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다락방> vo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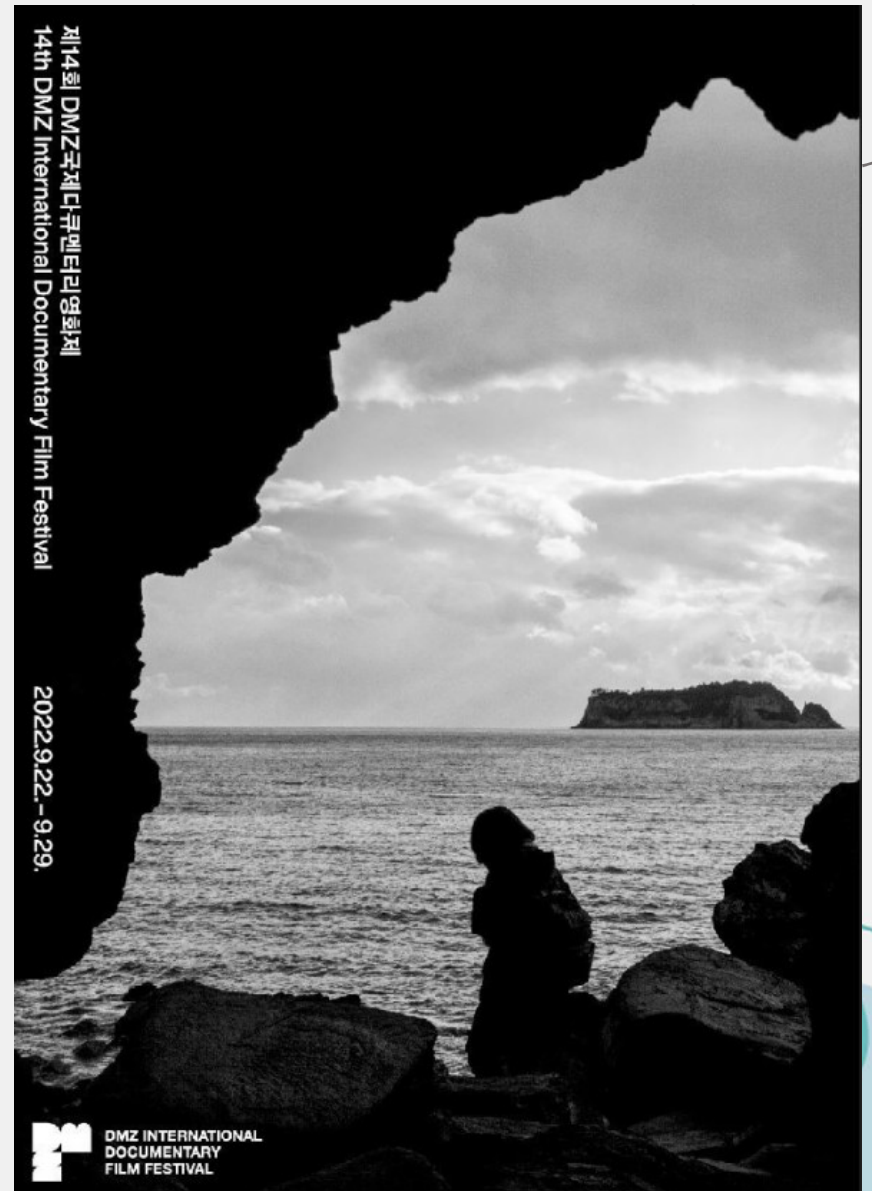
2022년 9월 22일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고양시 일산 동구 메가박스 백석점 & 메가박스 벨라시타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무장지대인 <DMZ>를 상징하며 생명, 평화,
소통의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와 관련된
국내, 해외 다큐멘터리 작품을 소개하는
아시아 최대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저희 팀은 2022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참석해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내와 해외에서 일어
나고 있는 민주주의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줄거리 <<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국경을 건넌 로힝야족.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방글라데시의 항구 도시, 콕스바자르다. 이곳은 이제 9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들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캠프다. 아이 웨이웨이 감독은 콕스바자르에 몇 달 동안 머물며, 로힝야족 사람들을 기록한다. 그들의 거주 공간과 일상의 대소사들, 풍속과 의식들을 통해, 가장 대규모의 박탈을 겪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존엄을 보여준다.

로hing야

<로hing야>를 보고 난민 관련된 GV에도 참석을 했다. 평소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던 터라 흥미로웠다. 다큐멘터리 감독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난민인권을 위한 활동에서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첫째는 난민 정책 운영에 있어 정부의 올바른 관점과 철학의 부재라고 한다. 난민 정책이 국내에서 시행된 지 벌써 25년째인데, 난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온 한국 정부가 현재의 상황에 내놓고 있는 대안들을 볼 때, 아직 멀고도 멀다.

국내 난민 정책을 포함한 이민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관리'와 '통제'의 프레임을 벗어 내지 못하는 한계인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가짜' 난민이나 이슬람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 언론에 인권보도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난민 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활동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인권침해도 말할 것도 없다고 한다.

난민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존재해서다.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이유는 국민이 아니고 난민으로서 착취받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계급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줄거리 <<

1970년대 명동의 '샤넬'은 바지 씨, 치마 씨들의 은밀한 아지트였다. 1996년, 레즈비언 청년들이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바 '레스보스'를 직접 오픈한다. 2000년대 초반, 커뮤니티를 찾던 10대 퀴어들이 신촌의 작은 공원에 모여든다. 그 근처에서 '레스보스'를 운영하던 명우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위기가 찾아오고, '레스보스'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다. 명우는 레스보스를 지킬 수 있을까?

홈그라운드

나는 닷페이스 채널을 통해 이미 '명우형'과 레즈비언 카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평소 LGBT+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과 달리 인터넷이나 소통의 공간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의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모였을지는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때 딱 닷페의 영상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던 저 당시에 레즈비언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다. 어릴 때 명동에 가면 유독 기독교 믿으라고 전도하는 시위라고 해야하나 그런 사람들과 동성애 반대 시위가 많이 보였는데 레즈비언들의 본거지가 명동이라 자주 보였던 걸까 하고 닷페 영상을 본 뒤, 퍼즐이 탁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과거엔 LGBT를 바지씨, 치마씨 이 정도로 부른 것 같았다. 최근엔 LGBT를 넘어서 +개념까지 나올만큼 성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하고 명명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달했는데, 이러한 추세를 명우님도 느끼시고 배우려고 하신다는 게 인상 깊었다.

"나는 내가 레즈비언이라 생각했는데, 트랜스젠더인 것 같더라고"

뇌리에 남았던 명우님의 대사. 선배 레즈비언들에게만 얻을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후배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더라 하시는 말이 대단하고 멋있게 느껴졌다. 성소수자 개념이 넓혀지는 것도 좋지만, 이것과 함께 인식도 더 많이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줄거리 <<

2013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고교무상화 정책. 하지만 유일하게 조선 고급학교 10개교만이 이 정책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무상화 지원금이 조총련 등에 의해 유용될 의혹이 있다는 것. 이에 반발한 5개교의 조선 고급학교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4년간의 심리 끝에 2017년 7월 19일 히로시마 조선 고급학교를 시작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차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투쟁이 진행 중이고, 조선학교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이 투쟁에 연대하는 많은 일본인 · 한국인 · 조선인이 있고, 학생들은 즐겁고도 고통스럽고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 알겠다. 나는 거기서 끝이었다. 한국 시민들이 느끼는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형의 정서적 갈등이 크다면,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는 식민지배의 잔흔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당대의 문제다. 일본과 있었던 역사적 시기에 멀어질수록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야기도 멀어지기 쉽고, 그래서 더욱더 이야기되어야 한다.

나는 이 영화에 조선학교 학생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은 '아이들'이다.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투쟁 주체인 학생들이 아니라 좋은 어른들이 지켜야 할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발랄하고 연예인을 좋아한다. 고교무상화 재판에 패소하고, '아이들'은 눈물을 흘린다.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해한다. 그 사이에 동료로 위로하고 의기를 다지는 '조선학교 학생'도 있고, 당당하게 발언하는 '조선학교 학생'도 있다. 근데 카메라는 '조선학교 학생'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이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돕는 어른들을 보여주고, 주체적인 모습의 '아이들'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조선학교 학생은 주체가 아니라 목적으로 보인다.

나는 앞으로도 조선학교의 투쟁과 재일조선인의 삶을 만나고 싶다. 아이들이 아닌 조선학교 학생을, 좋은 어른보다 재일조선인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홀로코스트 작품 기획전

<히포크라테스 선언>, <발루티 유대인 게토>, <강제수용소 베흐소굴>, <노아의 방주>

네 자매 (홀로코스트 기획전)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죽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언>
홀로코스트를 겪은 네 사람의 깊은 기억.
나치는 이렇게 죽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함으로.

첫 번째 영화 <히포크라테스 선언>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그건 내가 좀이따 이야기해줄게요",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이런 대사였다. 인터뷰어(주로 감독)와 인터뷰이(출연자) 사이에는 분명한 발화권력이 존재한다. <함께맞는비> 작업을 하며 30명 가량의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정말 내가 봐도 초짜, 초짜 중에 초짜인 나 같은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 인터뷰이들은 긴장하고 머뭇거린다. 나의 사소한 제스처나 표정,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죠?" 같은 눈빛과 기운을 내뿜는다. 인터뷰이는 주로,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질문해주어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터뷰'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 인터뷰어의 질문에 "그건 내가 좀이따 말해줄게요"라고 말을 끊는 장면이 정말 통쾌했다. 누군가 물어봐주어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장면. 지난 세월 동안 곱씹고 곱씹었을 이야기들, 사람들이 원하는 '홀로코스트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만으로서의 증언들, 아마 그 긴 시간을 지나 가능했을 것이다.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란츠만 감독이 이런 대사가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치열했던 과정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담은 수많은 카메라를 통해
잊혀지는 역사가 무사히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